**삼하0603 Note**

**하나님의 장막과 궤의 분리**

삼상0403. 그리고 백성이 진(陣)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니라,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렛셋인들 앞에서 치셨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혈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사이로 오는 때에, 그것이 우리를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삼상0501. 그리고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에벤에셀으로부터 아스돗(아쉬도드:파괴자,팔레스틴의 한곳 아스돗)에로 가져가니라,

삼상0614. 그리고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으로 들어와서, 큰 돌이 있던 거기에서 서니라, 이에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절단하여,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올리니라,

삼상0616. 그리고 블레셋인들의 다섯 군주들이 그것을 본 후에, 저들이 당일에 에그론으로 돌아가니라,

삼상0619. 그리고 그분께서 벧세메스의 사람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궤 속을 바라보았음이라, 바로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오만 칠십명을 치셨느니라, 그리고 백성이 탄식하였으니(아발:슬퍼하다,통곡하다,한탄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 중의 많은 이들을 큰 살육으로써 치셨음이라,

삼상0701. 그리고 기럇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것을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가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성별(聖別)시키니라 [카다쉬:(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결하다,성결하게 하다,성결하다고 선언하다,성결하게 지키다,지정하다,명하다,구별하여 마치다,봉헌하다,거룩하게 하다,거룩하다,지키다,깨끗케 하다,성결케 된 사람]

삼상0702. 그리고 궤가 기럇여아림에서 거하던 동안에,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시간이 길었느니라, 이는 그것이 이십년이었음이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여호와를 찾아 한탄하니라(나하:신음하다,몹시 슬퍼하다,소집하다,울다),